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우리 세대들에게 2020년은 공상과학(SF)영화에서 먼 미래의 시간으로 설정되어 언제나 까마득한 시간으로만 생각했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황폐화가 되고,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 조종 당하거나 화성 유인탐사선이 왕래하는 시간적 배경이었다.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장면을 오늘날의 현실 위로 겹쳐보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많이 다르다. 특히 인류의 삶은 영화와 비교하면 아직도 원초적이다. 아니, 따뜻하다.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의 많은 일들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며

새해의 덕담과 다짐

흥분하게 하고 의치게 했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직도 도청과 도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갈 정도로 복잡한 일들이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비록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합리적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장(主唱)하고 외면하면서 평평한 긴장으로 설날을 맞이할 것만 같다.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덕담 한마디와 새해 다짐들을 생각해본다. 마흔이 되면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조카의 마음 안으로도 들어가서 그럴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 지난해의 일들을 생각하며 술은 특별한 날에 한두 잔으로 만족하고 담배는 끊고 싶다. 덕담이 연하장에 한자로 사자성이거나 적어 보내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다가서는 온전한 마음의 한 조각이고 싶다. 비록 다짐이 며칠에 그쳐 해마다 반복되는 주기전승일지라도

도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최남선(崔南善)은 덕담을 '이제 그렇게 되라'고 축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별써 그렇게 되었다니 훌륭하다'라고 전하는 것이 덕담의 특색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금년에는 제발 결혼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이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 참 보기 좋다. 얼굴빛이 밝아서 참 고맙다'하는 식으로 마음을 전해주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음성 내지 언어에 신비한 힘이 들어 있어서, '무엇이 어땠다'하면 말 자체가 그대로 실현되는 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덕담은 곧, 이러한 언령적(言靈的) 효과를 기대한 데서 생긴 세시풍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야를 밝히는 시간에는,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새해 아침에 꿈은 다짐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은 소지(燒紙)

의식으로 모두 지울 수는 없어도 묻어가거나 지워나가기도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지난해가 아니었다면 올해 그리고 다음해로 이어지는 마음의 운용,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는 맹목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제주도의 환경 문제를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표현들을 바라보며 찌푸리거나 비아냥거렸다면 덕담을 품은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 다짐으로 늘 고운 방향의 길을 생각했으면서도 날카로운 내세워기 때문이다. 오늘, 덕담을 생각하며 새로이 가져보는 다짐은 소박하지만 따뜻하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설날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열린마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근로자법 개정



노 주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 가입대상사업주가 매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이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해 유족 수급범위를 개선하고 퇴직공제금 청구·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해 수급권 보호와 부정수급액 징수를 강화했다. 특히 퇴직공제제도 도입 이후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로서 이번 개정법 시행 전, 65세에 도달한 근로자도 지급요건이 적용된다. 제주 건설근로자 약 9000명이 약 21억 원의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는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은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1월 27일에 시행될 전자카드제는 일정 규모 이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내역 신고누락·허위신고를 방지한다. 내년 5월 27일에 시행될 건설기능등급제에서는 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철저한 인수인계로 행정불신 없도록”

원지사 주간정책회의서 당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이뤄진 인사와 관련, 행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 원 지사는 21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민원이나 주민소통 관계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비할 경우 행정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후에 책임을 묻고, 업무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라산 탐방 예약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홍보의 부재와 불만 사항 때문에 추진한 정책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해 눈길. 이번 경품 추첨은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

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6만4652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차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으며, 2만원의 은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은누리상품권 제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칭인. 고대로기자  
20년 넘게 이어지는 교류  
○...서귀포시와 자매도시인 강원도 철원군과의 농산물 교류가 이번 설에도 아김없이 이어져 눈길. 농산물 교류는 서귀포시에서 20~21일 철원군을 방문해 노지감귤(5kg)과 한라봉(3kg) 2335상자를 판매하고, 철원 오대쌀(10kg) 1101포대를 구입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특산물을 홍보. 시 관계자는 “1995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을 이용한 두 지역의 농산물 교류가 20년 넘게 이어지며 서로의 대표 특산물 홍보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사설

늘어나는 1·2인가구, 대비한 정책 고민을

30년 뒤 제주사회는 나홀로 가구와 부부만의 가구가 대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지역 가구형태의 변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대가족은 옛말이 됐습니다. 4인가족 중심의 핵가족에서 나홀로 1인가구와 부부중심 가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주택은 물론 경제 전반과 사회 안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는 도내 1인가구가 전체(36만1000가구)의 36.4%인 13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25.9%에서 2047년엔 4만5000가구(12.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부

가구는 지난해 15.0%에서 2047년엔 7만7000가구(21.5%)로 확대됩니다. 고령화 영향도 심각했습니다. 60세 이상 가구 비중은 2019년 31.1%에서 2047년엔 57.5%까지 증가한 반면 39세 이하 가구주는 11.0%, 40~59세는 31.5%로 하락했습니다. 미혼가구도 늘어 2047년엔 전체의 21%에 이를 전망입니다. 제주 역시 저출산·고령화에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를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1·2인가구 증가 등은 결혼기피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대책도 단선적 측면보다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맞춤형 대책과 맞물려 제주도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모형, 신중히 결정해야

제주도교육청이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이 공론화 의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은 두 가지입니다. 제1모형은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제2모형은 현 위치에서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바꾸는 겁니다.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바꾸려면 학교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신제주권에 새 부지를 확보해 학교를 옮기는 방안이 교육청 내부적으로 거론되

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이전 등을 함께 고려해 제주외고 전환 모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7일 세부 의제를 비롯해 여론조사 방법, 도민참여단 규모와 운영 방안 등 공론화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뜰이나 제주외고는 2015년 도교육청 차원의 일반고 전환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학부모와 동문 등의 반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적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민 의견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모형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부 고**  
강천중(한라씨에프엔관리팀장) 아버지 진주강공 병찬(제주직업훈련원 원장·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1일 12시 0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22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1월 23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좌 원 자  
아 들 강 천 중 며느리 김 명 신  
만 중 양 유 순  
윤 중 오 옥 진  
명 중  
득 중  
딸 장 은 미  
김 희 정  
손 자 강 건 우  
※ 연락처 : 강천중 010-2699-8411

**제주지방법원 관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757 업무방해  
• 피 고 인 김 훈 섭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21.  
판사 이 장 옥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조직변경공고**  
본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1월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솔한유목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 변경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 법인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0년 1월 22일  
현희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 186-56  
대표이사 장 현 용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컴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